

25년 7월 목회일정

19일(주일)	성찬조별기도회
27일(주일)	특강 : 성정체성 관련 (강사:이광원강도사)
18-19일	유년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본 예배당)
26-27일	중고청 연합MT(본 예배당) [주제 :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	--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후원목적(개혁정론 파서교회)
3. 2/4분기특별헌금 / 총 1,940,000원(경상비 지원)
4. 금요기도회 / 기도회(오후 9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5.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처음오신 분 / 김혁주 성도(신만덕제일교회-합동백석)

[제2회 김해개혁장로교회&동래언약교회 연합수련회]	
· 일시 : 2025년 8월 15-17일(2박 3일)	
· 장소 : 경주 호명산기도원(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산21-1)	
· 주제 : 시편 산책(강사 : 두 교회 교역자)	
· 내용 : 6차례 걸친 강설로 시편 이해와 주요 본문 강해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기도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기도회	09:30
	금요기도회	21: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교회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07월	08월
교회소식	고충석	김영민
봉 헌	김명순	김낙형
안 내	김민혁	조완식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 혁 정 론(고신 개혁 언론)
	파 서 교 회(고신,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김성옥선교사(특수지역-M국)
구제	곡 성 연 화 교 회 (최 지 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기동연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주후 2025.07.06.(제29-27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튼튼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교회소식

개회

- * 예배에로의부름 ↑ 시124:7-8(교송)
인도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 회 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도다
- * 축복의인사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 경배찬송 ↑ 시편98편(1-2)

죄의고백

- * 십계명봉독 ↓ 출20장(전계명/교독)
- * 죄의공적고백 ↑ 제 1형
-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 감사찬송 ↑ 찬송가12장(2)

말씀봉사

-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 성경봉독 ↓ 엡 4:7-16
-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68편(1-3,6)
- 설교 ↓ 설교자

교회를 위하시는 그리스도(2)

- 아멘 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 세례식 ↑ 필요시 시행
-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가377장(1-2) 구제헌금 분병 분잔
- 목회기도 ↑ 설교자

봉사사역

-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38장

폐회

- * 강복선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주일오후예배	교회소식	오후 3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주간기도회		
	개회			아침기도회 월~금 06시(교회밴드) 요한복음 묵상 인도 : 최성림 목사		
	* 예배예로의부름 ↑	미6:6a,8b(교송)	수요기도회 수요일 09:30(예배당) [나의 이름을 위한 집] 인도 : 최성림 목사		
	인도자 :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회 중 :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나					
	* 축복의인사 ↓	벤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배찬송 ↑	찬송23장(1-2b)			
	신앙고백					
	* 신앙고백 ↓	니케아신경			
* 감사찬송 ↑	찬송가548장(1)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약1:12-18, 창39:7-18				
교리문답교독 ↓	소교리106문답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03편(2-5)				
설교 ↓	설교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송 ↑	찬송가643장				
자비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시편51편(1-4)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주간성경읽기		
				주일	민12-14	눅5:27-39
				월	민15-17	눅6:1-19
				화	민18-20	눅6:20-38
				수	민21-22	눅6:39-49
				목	민23-25	눅7:1-10
				금	민26-28	눅7:11-23
				토	민29-31	눅7:24-35

주일설교를 기억하며(교회를 위하시는 그리스도)

- 말씀사역자들이 주님께 받은 은사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역을 할 수 있기를
-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까지 부지런히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개혁정론(고신개혁언론)

- 개혁주의신앙의 신앙정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섬기도록
-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위하여서는 어떤 권위나 압력에 굽히지 않는 신앙언론되게
- 고신교회가 역사적 개혁주의전통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잘 제공하도록

파서교회(강인종목사)

- 목사가 맡겨진 직임들(말씀,성례,성경공부인도..)을 감당하여 교회를 말씀의 터위에 굳게 세우도록
- 교회의 직분자들의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누리며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도록
- 필요한 재정이 이웃교회를 통해서 적절히 채워져서 공교회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신앙의 전투를 위하여

-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밝히 알아 신앙생활에 양다리를 걸친 중립지대에 서 있는 일이 없도록
- 성도들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 교회가 믿음의 전투에서 뒤로 빠지거나 물러남이 없이, 함께 믿음의 확신과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1)

박광영 목사(벤엘캐나다개혁신교회-개혁경론)

캐나다에서의 동성애 관련 설교

저는 이곳 캐나다 개혁신교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 진리를 강단에서 그대로 설교해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적 진리를 고수하는 캐나다 개혁신교회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종교적인 자유로 보호받습니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교회도 동성애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캐나다 내 성당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성애 사제뿐만 아니라 여성 사제도 성경의 가르침에 반한다고 생각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서구 사회에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만,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재 당면한 서구 교회의 위협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입니다. 10.27연합예배(2024년)를 홍보하는 영상이 다루는 “설교 중에 목사가 쫓겨난 일”이나 “목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난 일”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미국의 연합감리교회와 캐나다장로교회가 쿼어신학을 받아들인 후, 교권이 지역교회와 목사를 억압한 사건입니다.

저는 교회가 얼마나 신실하게 성경적 진리를 고수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사회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성경적인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큰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회의 위협이 아니라 교회의 변질입니다.

캐나다 공교육 학교현장에서의 교육문제

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는 공교육 현장에서의 교육문제입니다. 캐나다의 공교육 현장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입장을 가르치거나 표현하는 것은 제한되고,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교육 문제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공교육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무신론적, 유물론적 교육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오랫동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자녀의 신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캐나다의 많은 부모들은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 하고서라도 홈스쿨을 하거나 기독교 학교에 보냅니다. 캐나다 개혁신교회는 재정 후원을 통해 성도가 돈이 없어서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계속)

이번 주간 암송(유일한 구원의 이름)

사도행전 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조건 때문에 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약1:14,15) 첫 사람 아담의 욕심이 잉태되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고, 이것이 곧 사망을 낳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데, 이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하며 더 강하게 하며 신앙의 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시 26:2)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무기력이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2) 외부적요인 / 악한 자로부터 오는 외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이 시험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잘 분별하여 이 시험을 인하여 악한 자 마귀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했다면 우리의 의무는 이 악한 자로부터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 시험을 분별하여 그 속에 뛰어들지 않는 것입니다.(창39:7-18)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시험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뿐 아니라 지나친 욕심이나 사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하며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후11:13-15)

3. “악(한 자)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

우리의 시험은 악한 자의 꾀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이 악은 단순히 추상적인 악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정된 특별한 악, 그 악을 행한 자를 의미합니다.

1) 사단은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욕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속에 심겨진 욕심이 잉태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사단에게 내어놓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악한 것으로 무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과의 싸움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2) 사단은 늘 무서운 사자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자 마귀는 궤환의 역군으로 직접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훼손하고, 교회의 순결을 더럽히는 방법으로 교회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막상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위치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듦으로서 교회의 존재 의미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거짓 영을 분별하는 영이 없다면 그는 시험이 시험인 줄 모르고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섯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주시기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깨닫게 하여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소고리106b) 기도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험을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시험당할 때에 그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안전줄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단과 싸울 때, 우리의 악한 육신을 모두 벗어버리고 성령의 옷을 입을 때 이 악한 자의 시험에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7월6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366장
성경봉독	엡 4:7-16
설 교	교회를 위하시는 그리스도(2)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은사주의’는 잘못되었지만, “은사”는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1.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은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헬라어 원어도 주로 ‘은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은 바로 “은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합니다(8절). 시편과 에베소서 본문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시편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시온산에 오르시는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오르십니다. 둘째로, 시편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인간에게서 ‘받으시지만,’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시편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늘로 오르신 구원의 성취는, 구약역사에 일어났던 구원의 일들보다 더 온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전리품을 받으시 것이 아니라 언약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선물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 선물(은사)을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다. 이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지만, 다섯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가르치는 직분”이라는 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다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성경을 읽는다고 그 의미를 충분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직분’이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교회를 위하여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건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모두가 섬김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

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에는 ‘가르침’이 언제나,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자라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를 자라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직분과 은사를 주셨으니까요. 성도들이 자라는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직분자에게 더 큰 은사를 부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한 성도들에게 더 단단하고 신비로운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2. 선물을 주신 목적

모든 성도는 적극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13절). 신앙의 가르침을 잘 배워, 신앙에 있어서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 다른 모양과 성격을 가진 성도들이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결국 자라야 할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13절). 이 완전한 상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를 때에 이뤄질 것입니다. 이에 앞서 성도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에서 ‘어린 아이’가 나오는데, 어린 아이와 달리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고 분별력을 갖춘 ‘성숙한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물론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다 자란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이 말이 좀 복잡합니다. 그리스도의 총만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성숙한 분량에까지 이르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와 유혹 때문에 괴롭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화의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 그 온전한 상태를 바라며 달려가야 합니다.

또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과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는 참된 진리가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선포만 된다고 끝인가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고, 교회를 충만케 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가르치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 성원도 한 몸으로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모두 함께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두가 함께 결합되어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직분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온전함에 이르도록 부단히 달려가야 합니다.

마침내 영원한 천상의 교회에서도 한 몸으로 있을 우리를 소망합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07월06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342장
성경봉독	약1:12-18, 창39:7-18
설 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부도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성도는 매일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도입니다.

1.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본문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원합니다”는 기원문과 “악에서 구하라”는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졌는데 주문장은 기원문입니다. 여기서 악으로 번역된 단어는 “악한 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악에서 구출되는 것’이 다 이 악의 기원이 되는 악한 자, 사단과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당하신 악한 자, 마귀의 시험을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이기셨습니다.(마4:1-11) 그리고 이 기도문을 교회에게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친히 모든 시험을 친히 당하심으로 시험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히2:18, 4:15) 우리의 연약함은 이 악한 자의 시험하는 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이 악한 자 사단과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여섯 번째 기도를 부르짖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연약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이 범죄에 이르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 주시며,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시사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소교리106a)

이 기원은 단순히 형식적인 기원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면전에서 시시각각 위협을 가증시켜오는 사단의 모든 시험에 그들이 혼신을 기울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의 기원이었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의 계속되는 시험 앞에 성령님을 보내셨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대하여 굳게 설 수 있게 해 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인도를 바랄 때 매일의 시험으로부터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을 분별할 지혜를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을 대할 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은 자기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상황에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1) 내부적요인 / 많은 사람들은 흔히 시험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 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자기욕심이라는 주관적인 상태, 혹은 주관적인